

멕시코 건설경기 연내 회복 불투명

(2014. 7. 10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 건설경기 신뢰지수 동향

□ 최근 발표된 멕시코 '14. 2분기 멕시코 건설경기 신뢰지수 (ICOCO: el índice de confianza del constructor)는 50.5으로 멕시코 건설경기의 연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○ 최근 멕시코 건설경기 신뢰지수 변동추이

51.4 ('13. 4분기) → 50.4 ('14. 1분기) → 50.5 ('14. 2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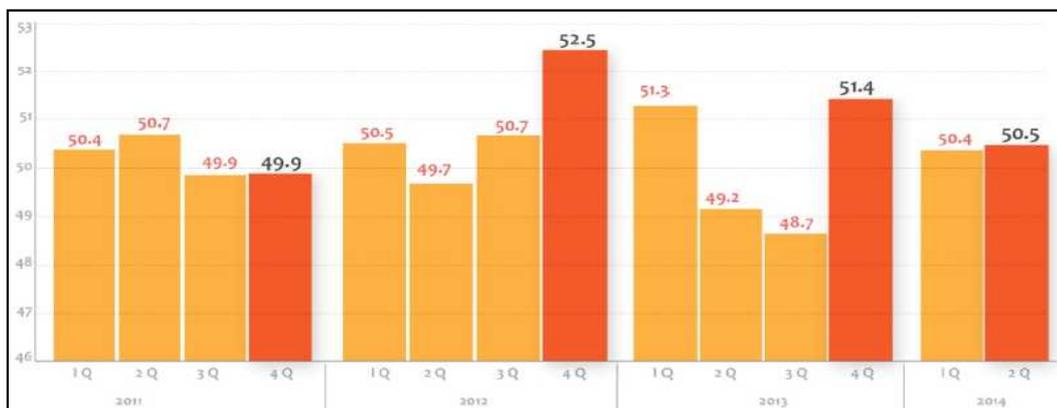
* 건설경기의 향후 호황 또는 불황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0부터 100사이의 숫자로 표현됨. 통상 숫자가 클수록 건설경기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. 지수 50을 기준으로 건설경기의 호전·후퇴 여부 등을 판단

본 지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현건설산업 현황, 기업의 각종 건설기자재 투자계획, 건설인력고용 능력, 보유건설중장비 규모, 향후 건설산업 전망 등임

○ '14. 2분기 신뢰지수 50.5 기록은 전분기 대비 0.1 point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워낙 미미

⇒ 멕시코 건설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

멕시코 건설경기 신뢰지수(ICOCO) 변동 추이



자료 : Bimsa Reportas SA de CV

2 월간산업지수 동향

- 멕시코 통계청(INEGI) 발표에 따르면, '14. 5월 건설업 월간산업지수는 94.5로 전월대비 2.2 point 상승
 - '14. 1월 대비 6.1 point 상승했으나 건설업 침체기였던 '13년 평균 96.0 보다 아직도 낮은 수준
 - 토목분야도 정부사업 발주지연 등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

월간산업지수 동향*

	'10	'11	'12	'13	'14				
					1	2	3	4	5
건설업	94.6	98.5	100.5	96.0	88.4	88.7	90.5	92.3	94.5
토목	110.5	113.7	114.9	110.0	97.1	93.7	93.8	99.6	103.7

* 지수산출기준 : 2008년도 100을 기준

3 전 망

- 멕시코 건설산업은 멕시코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각종 개혁(에너지 분야 등) 조치 관련 후속 입법 작업 지연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'14년 중반까지 부진상태* 유지 중

* '14. 4월까지 건설업 종사 근로자수는 4.5% ↓ 및 일일근로시간 4.6% ↓

- 일부 낙관론에 따르면, 각종 정부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경우 '14년 하반기 멕시코 건설산업지수는 전년 대비 약 3.0 point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'14. 3분기까지 경기전환의 뚜렷한 모멘텀이 없을 경우 '13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멕시코건설업은 '14년도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